

맞아 죽었으므로 전선의 장수가 말이 없으면 싸움을 할 수 없으니 말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내구마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을 골라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권응수 장군 실기에 의하면 당시 장군의 말이 적탄에 맞아 죽은 시점은 분명히 박진 군이 완패하여 안강으로 후퇴한 후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박의장 판관도 가슴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권응수 군관이 박진 병사가 패주한 후에도 박의장 판관과 함께 경주성 외곽에 머물며 전투를 계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권응수 군관은 경주성 탈환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계사년癸巳年 2월 5일자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임용됨으로써 박진 병사와 교체된다. 임란중에 권응수 장군을 내내 박해하고 저지한 박진 병사는 한직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전임된 사실을 보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주성 탈환전에서 전마戰馬를 잃은 권응수 장군에게 내린 내구마에 관한 사항은 왕조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장군의 실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데 이는 당시 관군을 지휘하던 사람이 박진 병사였기 때문에 그 내구마가 실제로는 권응수 군관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권응수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전투를 계속하면서도 이러한 제약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투 활동을 계속한다.

이렇게 어려운 전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 2월 5일자로 박진 병사를 체직遞職시켜 한직으로 발령하고 영천북성전의 공으로, 5개월 전인 그 전해 9월 1일자로 당상관 절충장군 병마우후로 발령된 권응수 장군을 박진의 후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발령하게 된다. 당시 박진 병사는 스스로 전투하는 데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권응수 장군을 휘하에 넣어 전공을 세워보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기회만 있으면 권응수 의병대장을 억압하고 음해했다. 이 사실은 당시 경상감사 김수金晙와 김성일金誠一의 장계狀啓로 임금에게도 보고되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당시 권응수 장군은 임금과 일면식이 없었고 조정에도 누구 한 사람 후원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일개 지방 의병대장이요, 병사의 군관에 지나지 않던 사람을, 더욱이 그 병사의 박해와 모함을 받고 있던 사람을 바로 그 병사의 직위로 발령한

것은 임금의 발탁인사가 아니고는 있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 전쟁내내의 고군분투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말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어지는 직분에 따라 내내 전투 활동을 계속한 권응수 장군의 내력에 대해 이형석李炯錫이 저술한 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지략과 용력勇力을 겸비한 무장武將으로서 63세로 와석종신臥席終身한 공신이었다. 선무이등宣武二等에 녹錄하여 화산군花山君으로 호봉號封되었으나 60세(선조 38년 을사)에 삭직削職되어 금부禁府에 내려간 적도 있다. 뒤에 피석被釋되기는 하였으나 말년은 비교적 불우하였고 죽은 뒤인 인조 2년 갑자 정월에 다시 선무공신으로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를 추증追贈받았으며 숙종 17년 신미 7월에 충의공忠毅公을 증시贈諡받았으니 본전역本戰役에서 그가 세운 공이 늦게나마 보상을 받은 셈이다. ……(중략)…… (갑오년) 7월에는 충청도 방어사를 겸하고 이사명李思命의 군사를 대신하여 거느린 다음 은진현감恩津縣監이곡李穀과 같이 적을 창암倉巖에서 대파하고 적장 가등청정加藤清正를 패주케 하였다.

선조 28년 을미에는 50세로서 정월에 경상좌도 방어사를 겸하여 4월에는 형강兄江에서 적을 대파하고 30년 정유재침丁酉再侵 때에는 52세로서 관찰사 이용순李用淳·병마절도사 김응서金應瑞와 같이 적을 달성達城까지 추격하여 대파하였으니 매전필승每戰必勝의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11월에는 왕명으로 부총병副總兵 해생解生을 따라 함경·강원 양로병兩路兵을 거느렸으며, 경리經理 양호楊鎬를 따라 제1차 울산전에 참가한 다음, 제독提督 마귀麻貴를 따라 제2차 울산전에 참가하는 등 영일寧日이 없이 왕사王事에 힘썼다.

본전역이 끝난 다음에는 32년 기해에 54세로서 2월에 밀양도호부사密陽都護府使를 겸하고 다음해 5월에는 의흥위부사직義興衛副司直을, 36년 계묘에는 2월에 충무위 호군忠武衛護軍을 배하고 3월에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으며 6월에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으로 화산군花山君에 호봉되고 7월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도총부都總府 도총관都總管을 겸하였다.

이때까지는 평순平順한 무장으로 처우 받았으나 38년 을사에 60세로서 정월에 삭직되어 하금부下禁府라는 액운을 맞이

농 동 칼 럼



현대판 심청 이야기

權 海 兆
편집위원

근자 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북한 여성이 중국 농촌에 팔려가는 실상을 알리는 기사를 보았다. 두만강 국경지역의 인신매매 모습과 강을 건너다 죽은 채 두 달이나 방치된 여자의 시신 사진을 보고 일제시의 ‘눈물젖은 두만강’ 노랫말의 사연보다 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굶어 죽고 어머니는 실명했다는 한 가족은 이웃에서 빌어다 먹은 잡곡 300kg 빚을 갚기 위해 20대 효녀가 우리 돈 4만6천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 350위안에 두만강 건너 중국인의 씨받이로 팔려갔다는 사연도 있다.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제물을 담당수의 제물로 판 심청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기혼 중이던 10년 전에 중국에 팔려가 연길延吉에서 중국 남자와 살고 있는 40대여성의 소원이 ‘조국이 빨리 통일되어 북한인이 중국에서 제일 못사는 나만큼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것’이라는 소리도 있었다. 현재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가 4만에서 10만으로 추정되고 그 가운데 칠팔십%가 여

성이며 상당수가 팔려간 경우라 한다. 이들은 범법 탈북자라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브로커나 단속 공안원 등에게 성폭행 등을 당해도 호소무책이라 한다. 또한 중국 농촌에서 남편에게 매를 맞고 자칫하면 유혈업소나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성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같은 탈북녀의 2세들은 중국의 인구정책 때문에 호구戶口에 올리지 못하여 국적도 없는 유령아가 되어 교육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탈북녀들은 그런 처지에서도 본국 송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실용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핵·개방·3000’의 실천이라고 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회의 개방화를 유도하며 3천불의 국민소득을 달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의 민족적 과제인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를 위한 지원부터 우선해야 할 것 같다. 세상의 온갖 서러움과 고통보다도 사람이 배고픔은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6·25전란 전후 보리고개와 가을걷이 전의 굶주림이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한 경험에 있다. 오늘의 우리 젊은 세대는 배고픔의 현실을 모른다. 근자 남한에서는 성인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체중을 줄이기에들 여념이 없는 것이 오래이고 농촌층각들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 월남·필리핀 등 외국여성을 국제결혼으로 맞아들이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 처녀 또한 우리 농촌 층각의 결혼 대상이다. 그런데 북한의 우리 동족 여성이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중국 농촌에 팔려가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병자호란시 5만의 젊은 여인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병들거나 나이먹어 환향녀還鄕女로 돌아온 일이 있고 일제시 태평양전쟁에서 20만 이상의 처자가 중군위안부로 끌려가 희생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도탄에 처한 북한 경제와 주민의 식량난, 상금도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팔려가고 있을 북한 동포 여성을 생각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부패무능한 조정의 탁상공론을 한탄하던 이충무공의 충정어린 독백을 되씹어본다. 이제 그 이념과 체제 다툼도 지겹도록 염증에 물릴 때가 되었으니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하루속히 시장경제로 함께 잘사는 복지통일 국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할 뿐이다.

하였다가 곧 석방이 되기는 하였으나 2월에 호군겸무용장護軍兼武勇將에 서임되고 3월에 봉군封君을 복復하고 4월에도 총관을 겸하게 되었다. 다음해 61세로 8월에 경상도 방어사를 다시 배하고, 41년 무신 4월에 63세로 남영장南營將을 겸하였다가 5월에 병으로 물러나 7월에 한성漢城 여사旅舍에서 병사하였으니 노년의 쓸쓸한 무장의 편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고조사이高鳥死而 양궁장良弓藏이요 교토사이狡兎死而 주구팽走狗烹’이라 는 동양 무장이 간직하는 공통적인 노년의 비애가 서리기도 하는 그의 일생이었다. 그에게는 일화가 없다. 이것은 그가 평범한 무장으로, 다만 국방에만 전념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데만 심혈을 기울였다는 일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바, 연소한 박진의 농간에도 굴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소임을 다하였던 그의 고결한 심지心志를 높이 평가하여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화공火攻으로써 영천성을 탈환한 그의 공훈은 영세토록 전승傳頌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참으로 무장다운 무장의 한 사람이었다.

銀권응수 장군의 전투실황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많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관군으로서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영일이 없이 벌인 전투와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권응수 장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사정이 허락지 않아 여기에서 중단

하고자 하니 행여 관심있게 읽 어온 독자가 있으면 매우 미안 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 내용이 비록 변변 하지는 못하지만 알운성자雲聲 같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나 필자의 허황된 욕심일 뿐입니다.

담백한 맛의 명문

도봉산원조 10년전통

산두부집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등산객눈길이팔리고
하산자에겐 참새방앗간 !

